



남원 송동면, 농촌일손돕기에 팔 걷어붙여

남원시 송동면에서는 면 직원과 축산과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송동면 송기리 복숭아 농장(8,000㎡)을 찾아 일손돕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직원들이 나섰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수해와 지속되는 자연재난(서리, 한파 등)이 겹쳐 영농에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송동면 직원과 축산과 직원들은 복숭아 봉지 씌우는 작업을 도왔다.

이선재 면장은 "앞으로도 매년 일손 돕기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행정이 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군산 흥남동, 동네 소식 알리판 설치 소통행진

군산 흥남동은 미원광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9곳을 선정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알리판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흥남동 '우리동네 소식 알리판'은 각종 행정 소식 등 공지 사항을 게시하여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시정 홍보 사항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우진 흥남동장은 "알리판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정보나 다양한 시책 등을 안내하여 온라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동네 소식 알리판은 월 2회 이상 인근 봉장들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태어난 아기들에 주는 첫 선물

예수병원 첫 배냇저고리 선물 이벤트



예수병원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첫 배냇저고리" 선물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현재 예수병원에서 진행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 활동 강화를 위한 가치(가소움) 예수병원, 치료받고 싶은 예수병원)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첫 배냇저고리 이벤트의 처음 주인공은 신주현 산모의 남아 튼튼이(태명)이다. 신주현 산모는 현재 예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8년차 간호사다. 병원은 지난 20일 출산한 산모의 병실을 찾아 첫 배냇저고리를 증정하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다.

신주현 산모는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기에게 예수병원의 첫 배냇저고리를 1호로 입힐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가 예수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로 12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수병원은 병원을 찾는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진정한 고객 중심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 배냇저고리"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직원이 노력 중이다.

/김윤상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건국대 민상기 전 총장 자문 위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재단 발전과 태권도원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자문위원회의 위촉 위촉식을 가졌다. 26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자문 위촉 위촉식에서는 건국대학교 민상기 전 총장을 위촉장으로 한 7명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번째 자문 회의에 이어 태권전과 명인관 태권도원 시설공역 등 태권도원 시설과 콘텐츠 등을 확인했다. 위촉들은 이날부터 1년간 재단 사업 전반과 태권도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자문을 하게 된다.



서신동 지사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전주시 서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봉철)는 지난 24일 서신길공원과 당산로 일대에서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복지 취약계층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새마을부녀회, 동장협의회 회원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와 공원을 중심으로 위기 사례와 지원 절차 등에 설명하고 신고 요령이 기재된 전단지과 방역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시 생계급여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고창경찰,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대상 교육

고창경찰서는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단계별로 예측하여 범죄예방활동에 활용 할 수 있는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에 대해 지역경찰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이란, 112신고 데이터와 방범시설 데이터 등을 AI로 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청에서 지난 12월에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전국 확대 시행 중이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제작 메뉴얼 및 동영상 배포하여 시스템 작동요령 및 112순찰차 위험지역 우선 순환 방법 등을 교육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북도, '이달의혁신 주인공' 도 정무기획과 진영록 선정

전북도 정무기획과 진영록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 올해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한 '이달의 배려풀 주인공'을 선정, 그 주인공으로 심사를 통해 진영록 주무관을 최종 선정했다.

진영록 주무관은 격무와 잦은 야근으로 자녀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자녀 생활일 2시간 조기 퇴근 및 케이크 상품권을 지급해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녀사랑 Day' 시책을 발굴하고 부서 시행을 추진했다.

또한, 매주 월요일 30분 조기 퇴근해 어린이집 하원시간에 자녀를 픽업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유연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썼고, 수요일 오후 업무지시 없는 가족사랑의 날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배려풀 전북 문화 정착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진영록 주무관은 "자지만 소소한 배려풀 실천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큰 활력이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가정과 일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배려풀



직장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후 도 행정부지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며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이러한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성 기자

임실 신행면,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금 현장 접수

신행면이 한 가구당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의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의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중생계지원, 피해농업 인지원 등 코로나19 피해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4년 11월 23일 등록(약간)
(주)매일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 | | | |
|-----------------------|-----------------------|-----------------------|-----------------------|
| 전주지사 010-9945-4113 | 중앙지사 010-9138-6574 | 남원지사 632-3386 | 고창지사 633-6999 |
| 삼천지사 010-2333-4791 | 인후지사 246-6655 | 김제지사 545-4227 | 임실지사 010-9942-2725 |
| 산신지사 272-9417 | 송천지사 255-2404 | 안주지사 246-6655 | 진안지사 433-3104 |
| 호지지사 010-6945-9935 | 팔복지사 253-6944 | 남원지사 632-0885 | 정읍지사 536-3757 |
| | 군산지사 010-6739-0338 | 순창지사 653-0444 | 장수지사 010-3322-6157 |
| | 익산지사 653-9923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2300-4253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